

# “이게 말이 되나”...현실된 마약성 ‘하이쿠키’

LG U+모바일tv 첫 드라마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연상 시켜  
꿈 이뤄주는 쿠키...판타지 설정  
“순수한 욕망 끄집어내는 매개체”  
“혼자 보기 아까워...한번만 봐달라”

올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음료를 만들었고, 시음행사를 방자해 고등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문구를 적어 '공부가 잘 되는 약'이라고 속을 수박에 없었. 이후 학부모에게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 지난달 23일 공개한 LG U+모바일tv '하이쿠키'와 오버랩됐다. 송민엽 PD는 '가상의 판타지 설정이 아닐까?' 싶었지만, 어느새 마약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다.

“강한 작가님이 3년 전 기획했고, 내가 작업한 건 1년 반 정도 됐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했고, 어색하게 보여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서 마약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파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지?’ 싶다. 그렇다고 현실 이야기를 너무 고려하진 않았다. 리얼한 약물이 아니었으면 해 쿠키라는 매개체를 선택했다. 하이쿠키는 환상의 물질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다고 나오진 않는다. 오히려 조금 귀엽게 표현하면, 학생들이 쿠키를 들고 있는 게 소름 끼치지 않을까 싶었다.”

하이쿠키는 한 입만 베어 물어도 꿈을 이뤄주는 쿠키가 엘리트 고등학교를 집어 삼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U+모바일tv 첫 드라마이며, 회당 약 30분 분량 미드폼이다. 총 10부작, 20회차로 조개 선보이고 있다.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 “넷플릭스 순위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개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높다. 유폰으로 다시 유입, 선순환 되고 있다”며 “유폰이 가입자가 조금 증가했다고 하더라. 유폰이 통신사를 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는데, 그 외 통신사 이용자들도 가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학원물이지만 청소년은 볼 수 없다. 마약을 소재로 한 만큼, 전 회차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재와 내용을 봤을 때 청소년 관람불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학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어른들이 봤을 때 이해·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학생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며 “15세 드라마보다 수위, 방식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갔다. 순화하려고 했는데, 기본 설정이 강해서 표현을 안 할 수는 없었다. 최대한 불편하지 않고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학생 속옷을 훔쳐 오라고 시키거나, 쿠키를 먹고 야한 상상을 하고, 학교에서 애정을 나누는 신 등은 수위가 꽤 높았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없었을까 싶다”며 아쉬워 했다. “굳이 (그런 장면이) 필요했냐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불편하고 자극적인 장면일 수 있지만, 솔직한 욕망을 이야기 해야 쿠키 설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얼만큼 쿠키가 적나라하고,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끄집어 낼 수 있는지 표현했다. 후반부에 지속적으로 그런 장면이 나오진 않는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 갈구하는 욕망이 있지 않나.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순수한 욕망을 접하면서 변한다. 쿠키를 통해 보통 사람이지만 강력한 유혹, 시련을 겪었을 때 어떻게 무너지고 극복하는지 봐 달라.”

웨이브 '약한영웅 클래스1'(2022)과 비슷한 부분도 많다. 두 작품 모두 청소년 마약을 소재로 했는데, 하이쿠키는 약한영웅에 비하면 현실성이 조금 떨어졌다. “사실 리얼하게 접근하면 말이 안 되는 작품이긴 하다. 학생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것도 그렇고, 쿠키 설정도 그렇다”면서 “인물이 황당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도 초반에 감정을 이입하면 몰입해서 따라갈 수 있다”고 짚었다. “초반에 수영, 민영 서사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노력했다”며 “판타지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자매 시점에서 보면 좀 더 몰입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호흡을 타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했다.

하이쿠키는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수영'(남지현)과 정하고 3학년 '최민영'(정다빈) 자매가 이야기 중심 축이다. 남지현과 정다빈은 아역 출신인 만큼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을 이끌었다. 특히 남지현은 기존 작품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송 PD는 “남지현씨는 아역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조금 제한된 폭 안에서 배역을 해 본인의 역량을 끄집어낼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얼마나 깊이 있고 폭넓게 연기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지금껏 하지 않은 모습을 끄집어 내줬다”며 고마워했다.

정다빈은 얼굴 상처를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다. 마스크는 30종 이상 써본 뒤 회색 쇠부리형으로 정했고, 흉터 분장하는데도 2시간 이상 걸렸다. 송 PD는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건 배우 입장에서 큰 패널티다.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대사 전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마스크를 써서 잃는 부분도 있지만,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정다빈씨도 기존 드라마에서 보지 못한 강렬한 이미지가 구축됐다. 민영은 하이쿠키 시작을 열고, 키가 되는 인물 아니다. 200% 이상 소화해줬다. 대견하다”고 칭찬했다.

5회까지 공개했는데, 정하고 천재소년 '서호수'(최현욱)가 쿠키를 만드는 셰프로 밝혀졌다. 초반부는 수영과 민영 중심으로 이야

기가 전개됐다면, 중·후반부는 수영과 호수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지가 관전 포인트다. “수영이 영업하면 할수록, 정하고에서 쿠키를 먹고 중독된 학생들이 늘어나고 결국 파국으로 간다. 수영은 동생을 구하는 게 목표였지만, 결국 쿠키를 파는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다. 후반부에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대가를 치르는지 봐달라”고 전했다.

하이쿠키는 ‘오월의 청춘’(2021)에 이어 두 번째 메인 연출작이다. KBS를 퇴사한 줄 알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다. 기회가 와서 작품을 하게 됐다”며 웃었다. “하이쿠키를 만들며 내 욕망도 생각해봤다”며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기본적으로 무사히 살고 싶은 마음이 크고, 내 삶에 큰 이벤트가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작품을 만들고 ‘이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작품이 재미없고 안 맞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몰입해서 볼 것 같다. 반응이 극명히 갈리는 작품이긴 하다. 순위, 화제성, 시청률 등 지표도 중요하지만, ‘재미있게 봤다’ ‘다음 화도 보고 싶다’ 반응이 제일 기쁘다. 꼭 1000명, 1만명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한 분이라도 재미있게 보면 의미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겐 즐거운 경험이 된 거니까. 재미없으면 안 봐도 되니 일단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재미가 있다.”



## 싱어송라이터 옥상달빛 약 10년 만에 정규 발매

싱어송라이터 듀오 '옥상달빛'이 약 10년 만에 정규 음반을 낸다.

7일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에 따르면, 옥상달빛은 정규 음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MBC FM4U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 DJ 자리를 완전히 떠난다.

옥상달빛 멤버 박세진은 전날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에서 “오는 18일을 끝으로 DJ를 마무리한다. 정규 앨범 작업에 매진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18일 마지막 방송에는 올 한해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가졌던 옥상달빛 다른 멤버 김윤주도 출연한다.

박세진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며 5년 간의 DJ 여정을 마무리한다. 옥상달빛은 2018년부터 DJ 자리를 지켜오며 감성적인 진행으로 인기를 누렸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4월 옥상달빛이 '희한한 시대' 코너에서 언급했던 에세이를 엮은 '언젠가 이 밤도 노래가 되겠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옥상달빛은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를 통해 “정들었던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와의 이별이 아쉽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옥상달빛은 흥대 인디신에서 활동하다 2010년 EP '옥타라도'로 정식 데뷔했다. 다수의 EP 및 싱글을 발매했다. 정규 발매는 2013년 5월 내놓은 정규 2집 '웨어(Where)'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작업 중인 이번 음반이 정규 3집이 되는 셈이다.

데뷔 14주년 당일인 내년 1월22일에 발매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제로베이스원, 두 앨범 연속 당일 '밀리언셀러'

프로젝트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이 데뷔 앨범에 이어 두 번째 앨범도 발매 하루 만에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7일 한터차트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이 전날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는 발매 당일 총 145만 8089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발매한 첫 번째 미니앨범 '유스 인 더 셰이드(YOUTH IN THE SHADE)' 역시 발매 하루 만에 약 124만 장 판매고를 올렸다. K팝 그룹 처음으로 데뷔 첫날 밀리언셀러가 됐다. 이 앨범은 누적 판매량 200만 장을 넘어섰다.

'멜팅 포인트'는 제로베이스원의 믿음으로 녹는 점에 도달한 아홉 멤버가 단단한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에 나선 이야기를 담았다. 타이틀곡 '크러시(CRUSH:가시)'에는 제로베이스원의 사랑으로 꿈을 찬란하게 피워낸 멤버들이 이제는 장미꽃의 가시가 돼 그들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녹였다.

뉴스스

## 정국, '핫100' 2주 연속 두곡 동시 진입...뉴진스, '빌보드200' 15주 차트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팝스타 정국과 대세 그룹 '세븐틴'(SVT),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등 K팝 팀들이 미국 빌보드 다수의 차트에서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11월11일 자)에 따르면, 정국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투 머치(TOO MUCH)'는 93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해당 차트에 44위로 데뷔한 곡으로 2주 연속 진입했다. 호주 래퍼 더 키드 라

로이(The Kid LAROI), 영국 래퍼 센트럴 시(Central Cee)와 협업한 곡이다.

정국의 두 번째 공식 솔로 싱글 '3D(feat. Jack Harlow)'는 이번 주 '핫100'에서 전주 대비 25계단 떨어진 100위를 차지했다. 다만 5주 연속 차트인했다. 이에 따라 정국은 2주 연속 '핫100'에 두 곡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정국은 지난 3월 첫 솔로 앨범 '골든'을 발매했다. 이 음반은 18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로 데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핫100'의 톱10 진입이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 앨범과 곡들이 고르게 차트에 포진했다.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정국이 '세븐(Seven)(feat. Latto)'(2위), '3D'(11위), '투 머치'(36위)로 자리했다. 뷔(V)의 솔로 앨범 '레이 오버'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Slow Dancing)'과 지민의 솔로 앨범 '페이스'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는 각각 67위, 76위에 랭크됐다. '글로벌 200'에서는 '세븐' 10위, '3D' 23위, '투 머치' 55위, '라이크 크레이지' 110위, '슬로우 댄싱' 113위 등의 순위로 자리를 차지

## 테일러 스위프트, '핫100'·'빌보드200'·'글로벌200' 짝꿍이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의 첫 솔로 싱글 '디 에스트로넛(The Astronaut)'이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 4위로 깜짝 재진입했다.

세븐틴의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SEVENTEENTH HEAVEN)'은 '빌보드 200'에서 2위로 데뷔했다.

이에 따라 세븐틴은 전작 미니 10집 'FML'에 이어 2개 앨범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세븐틴은 또한 '빌보드 200'에 미니 8집 '유어 초이스(Your Choice)'와 미니 9집 '아타카(Attaca)',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 정규 4집 리패키지 '섹터(SECTOR) 17', 'FML', '세븐틴스 헤븐' 등 여섯 번째 차트인했다. 이 가운데 4개 앨범이 연속으로 '톱10'에 들었다.

4세대 K팝 간판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도 '빌보드 200'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들의 정규 3집 '이름의 장: 프리폴(FREEFALL)'은 '빌보드 200'에서 36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이 차트 지난 10월28일 자에 진입한 이래 3주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뉴진스의 미니 2집 '겟 업(Get Up)'은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19위에 자리했다. 이로써 '겟 업'은 이 차트 8월5일 자에 1위로 진입한 이래 15주 연속 머무르며 4세대 K-팝 걸그룹 음반으로는 최장기간 차트인 신기록을 또 경신했다. 현재 '빌보드 200'에 가장 오래 머문 K팝 걸그룹 음반은 '블랙핑크'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이다. 해당 차트에 총 26주간 머물렀다.

4세대 K팝 간판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의 첫 영어 디지털 싱글 '퍼펙트 나이트(Perfect Night)'는 아쉽게 '핫100'에 진입하지 못했다. 빌보드 내 '버블링 언더 핫 100' 20위에 오른 것이다. '버블링 언더 핫 100'은 '핫 100'에 간발의 차로 진입하지 못한 곡들의 순위를 매기는 차트다. '핫 100'과 동일하게 판매량, 라디오 에어플레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버블링 언더 핫 100'은 '핫 100'으로 가는 관문으로 통한다.

한편, 이번 주 '빌보드 200' 1위는 예고대로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1989(테일러스 버전(Taylor's Version))'다. 165만3000장 상당이라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

2015년 11월 영국 팝스타 '아델'이 정규 3집 '25'로 기록한 첫 주 판매량 348만2000장 이후 가장 많은 첫 주 판매량이다. 이번 음반은 2014년 발매한 '1989'의 재녹음 버전이다. 오리지널 음반이 기록한 판매량 128만7000장보다 재녹음 판매량이 35만장가량 더 많다. 아울러 스위프트는 이번 1위로 '빌보드 200'에서 13개의 앨범을 정상에 올린 기록도 썼다. 해당 음반은 다음 주에도 '빌보드 200' 1위로 예측되고 있다.

이 앨범의 수록곡 '이즈 잇 오버 나우(Is It Over Now?)(테일러스 버전)'이 '핫100' 1위다. 지난 주 '핫100' 1위는 스위프트의 다른 곡 '크루엘 서머'였다. 스위프트는 두 개의 다른 곡으로 '핫100'에서 연속 정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즈 잇 오버 나우?'(테일러스 버전)는 '글로벌 200'에서도 정상에 올랐다.